

# 배동신 작품 만나고 숲속 음악회 즐기고...

## 광주문화읽기



가을 인문학축제 '굿모닝 양림' 31일까지 열려  
인문학 강좌·사생대회 등 40여개 전시·공연 등 다채

'가을의 기도' 김현승 시인, '무등산 화가' 이강하 화백, '중국의 3대 음악가' 정홍성..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광주 양림동을 거쳐갔다. 이는 일제강점기 선교사들이 몰려들어 조선인들이 양림동에서는 식민 지배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100년 넘는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지켜온 마을의 전통 덕분이기도 하다.



'8회 굿모닝 양림'이 31일까지 남구 양림동 일대에서 열린다. 배동신 작 '복숭아'.

광주 근대역사문화의 산실 양림동의 대표적 가을 인문학축제 '굿모닝 양림'이 올해 8회를 맞았다. 광주시 남구가 주최하고 남구문화원(원장 이태호)·굿모닝양림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한희원)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시작해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올해 주제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로 양림동과 사적공원을 무대로 40여 개의 전시·공연·강좌가 펼쳐진다.

먼저 양림동을 대표하는 화가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전시 소식이 풍부하다.

한국 현대미술계의 1세대 화가로 수채화의 지평을 넓힌 배동신(1920~2008) 화백의 작품 30여 점을 볼 수 있는 특별전이 30일까지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생전 배 화백과 가까웠던 고서화수집가 최효삼씨의 소장품들로 희귀작으로 꼽히는 유화 '목포항' (1947), '누드' (1983) 등을 만날 수 있다.

황영성, 우재길, 주홍, 이매리 등의 작품을 전시한 '양림동 화가들' 전은 515갤러리에서 열리고 평민마을 한편에는 양림동의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펼쳐진다.

박성호작가의 '양림의 정크아트', 안진성



시인 정호승

서양화가 초대전', '판화로 본 양림', '양림동의 문화 인물전', 정운화 작가 등이 사적공원 입구를 꾸민 '숲속 미디어아트', '2018 한중



김정순 소장

작가 교류전'이 이곳에서 열린다. '굿모닝 양림' 축제의 절정은 이번 주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후 7시에



가수 최성수

는 전야 공연으로 '가을 숲속 음악회'가 양림동의 밤을 밝힌다.

최거룡의 색소폰 연주로 문을 열고 인디 밴드 '우물 안 개구리'와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가수 최성수, 남구합창단이 무대를 꾸민다. 다음날 오전 10시에는 '전국 가을 시낭송대회'가 열려 아름다운 시구로 사적공원을 수놓을 예정이다.

같은 날 학강초교에서는 비보이, 재즈, 국악가요 등 다양한 장르음악을 접할 수 있는 '양림문화난장/도드리 퓨전음악회' (오후 1시)가 열리고 평민마을에서는 또 바비 밴드가 색소폰을 연주한다(오후 2시). 이외 '시인 나비연의 북콘서트', '함세아 토크 콘서트', '추억의 DJ박스', '해와 달 밴드 초청공연'이 이어진다. 오후 7시 사적공원에서는 '잊혀진 계절' 이용 등이 출연하는 KBC라디오 공개방송이 진행된다.

매년 명사를 초청하는 인문학 강좌는 오웬기념관에서 열린다. 20일 오후 1시 시인 정호승이 '외로운이 사람이야'를 주제로 강의를 펼치고 다음날 오후 3시 김정순 여류가자문제연구소장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20일에는 이강하미술관이 주관하는 '2018 양림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어린이 300명이 기량을 뽐내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예체험, 역사문화 탐방, 플라마켓 등도 양림동의 활기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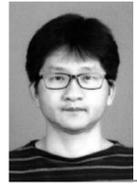
한희원 화백은 "시골벽적화 여느 축제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드는 잔잔한 인문학 축제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양림동을 찾는 시민들이 골목을 걸으며 100년 넘게 쌓여진 문화·미술·음악의 흔적을 느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671-735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날이었다. 도로와 골목과 광장, 낮은 지붕과 그보다 좀 더 높은 지붕, 큰 나무와 작은 나무... 모두가 눈으로 뒤덮여 세상은 온통 눈발의 구름이 되었다. 무차별로 작렬하는 눈은 눈발이 확연히 구별되던 입체들을 평평한 두께들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3층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실눈을 뜬 채로. 사람들이 모두 거인이라면 저 구름을 성큼성큼 가로질러 올 텐데...

모처럼의 큰 눈 덕분에, 시내에 인접한 나의 작은 서점은 무수하고 무수한 중중결결을 끝없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로 멀어져가고 있었다. '아무도 저 구름을 건너와 서점의 책을 들춰보려 하진 않을 거야.' 그날 나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서점을 지킨다는 건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다. 누군가를 맞이하



신현창  
책과 생활 대표

문학평론가도 그런 경험을 들려주었다. 광주에 직장을 얻어 살림을 차린 그에게 황지우 시인이 한 말도 '고마워'였다.

아아, 어쩌면 이 글은 최근에 신형철 선생이 낸 새 산문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한겨레출판)에 마을의 밑바닥을 긁어서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의 글은 읽다 보면 속절없이 숙연해져 반성의 시간을 갖게 만든다. "모든 관계는 일종의 교환"(332쪽)이라고 생각하는

## 온전한 서점 만들기를 위한 서설

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일이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기로 마음먹은 순간, 나는 어디선가 나의 서점을 떠올리고 찾아오는 단 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지 모른다.

그렇게 그런 날에도 누군가들은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서점은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그 시간에는 모든 이가 예고 없이 찾아올 권한을 누릴 수 있으므로 모든 상점의 주인은 예고 없는 방문자를 언제나 상상하는 사람이다. 날이 찾아 거리에 사람이 없는 날에 오는 손님은 먼 데서 찾아오는 오랜 벗처럼 반갑지만, 번번이 나는 환대에 인색한 사람처럼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나는 서점 '주인'인데 손님으로 대접 받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나의 서점은 인터넷서점처럼 책값을 싸게 주지도 않으며, 대형서점만큼 다양하게 책을 구비하지도 못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골목을 찾아서 2층까지 올라와야 하는 수고를 감수하게끔 한다. 편리와 합리와는 거리가 먼 이 작은 서점에 사람들은 '일부러' 온다. 그야말로 '마음을 내어 군이' 와서 책을 사들고 가는 것이다.

광주에서 살게 된 지 어느덧 5년이 넘었다. 서점을 연 지는 2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다. 지난 2년여 동안 광주 사람에게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는 '광주에 남아줘서 고맙다'는 것이었다. 얼마

그는, 사랑을 "상대방이 나로 인해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상호 배려로 성취되는 일"(336쪽)이라고 말한다.

사랑에도 지정학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다면, 광주는 가장 뜨거운 지정학적 도시일 것이다. 어느 곳에 3년 정도는 살아야 비로소 그곳의 주민이 된다는 게 평소의 생각인데, 5년을 훌쩍 지난 지금도 나는 광주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그동안 나는 일벼처럼 이 도시의 이방인이라 자처하며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쉽고 편한 말로 단순화했다. 손님 대접만 받는 "반복되는 혜택 앞에서 서서히 자기 성장 능력을 잃어버" (223쪽)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서점에 주어진 과제를 털어내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다.

대설주의보가 내렸던 그날에 받았던 어떤 느낌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심상이 되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날의 눈은 내겐 상서로운 눈이었겠다. 이제 이방인이라 자의식을 그날의 눈의 구름 속에 묻어야 한다. 그리고 온전한 서점을 만들 궁리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 광주시립미술관 내일 '노순택 작가와의 대화'

##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참여 작가와 GB토크

### '핏빛 파란' 전 부대행사



전'과 노순택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해 강연하며 이후 최 평론가와 노 작가의 질의 응답과 작품 설명 시간을 갖는다. 문의 062-613-714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17일 아시아문화전당

2018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및 참여 작가와 함께 하는 10월의 GB토크가 17일 오후 2시~4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크는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 7개의 주제 전 중 동시대 한국미술의 풍경을 서로 다른 3개의 창을 통해 바라보면서 예술적 상상력과 행위들을 집약시켜 보여주는 '생존의 기술: 집결하기, 지속하기, 변화하기' 중 파트 3 '집결지와 비장소'에 대해 깊이 만나는 자리다.

예술극장 로비에서 집결해 문화장조원 복합 2관 이은노 작가의 '군상' 작품 앞에서 김만석 큐레이터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매매 집결지에 관한 아카이브 작업을 영상·설치로 선보인 정유승 작가와 5·18 유가족인 김정복 여르신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삶의 궤적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구성한 박화연 작가와의 토크도 마련된다. 이번 GB토크는 전시 투어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30명이다.

신청링크 <https://goo.gl/forms/GWWKRoJjzt2Hn1Wv2>. 문의 062-608-4233. /김미은 기자 mekim@

#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55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